

전 남

“거문도 어민들이 울릉도·독도 개척”

김수희 영남대교수 심포지엄 주제발표

1882년 검찰사 보고서·노동요에 흔적
독도 영유권 관련 체계적인 연구 필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이 200여년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개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희 영남대 교수는 지난 21일 여수 디오센터에서 열린 '전라도 지역민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심포지엄(사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거문도인들이 울릉도·독도에 도항해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노동요나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울릉도·독도를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거문도·초도 어민들의 어로활동과 감치잡이 등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거문도와 초도는 인구가 많고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문도인들은 제주도 해역에서 동쪽으로 올라오는 거문도 주변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해 서해안과 동해안, 울릉도를 오가며 상업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거문도 어민들은 18세기 중반부터 울릉도를 건너가 미역과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고 배를 건조했다. 특히 이들은 독도에서 감치를 잡아 영산강 포구에서 호불불 기름으로 팔아 쌀로 바꿔 울릉도로 갔으며, 배를 만들며 썰기목으로 이용할 나무를 독도에서 베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측의 “한국인이 다케시마(竹島)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울릉도에 정착하고 다케시마를 출어한 후”라는 논리를 뒤집는다. 일본 연구자들은 그동안 1904년 이후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1882년 조선정부가 파견한 검찰사 이규원이 남긴 ‘감찰일기’에 울릉도에 왔다는 본국인



건과 러시아의 대응(홍용호 동국대 교수) ▲독도 명칭 근원에 대한 고찰(임영정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현주소와 개선방향(한철호 동국대 교수) 등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기초발표에서 “1883년 조선정부가 공도(空島) 정책을 폐지하기 훨씬 이전부터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고 가면서 개척했고, 조운선(여객선) 역할도 했다”며 “여수 어민들의 해양 개척정신은 ‘2012 여수세계 박람회’의 문화적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환경평가·경관심의 사전 절차 철저히”

광주호 독높이기 설계 토론회...환경단체는 불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주호 세부설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의원, 총효동 주민, 영산강유역환경청, 담양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불참했다. 김중현 총효동 부장은 “생태공원 배수구가 적어 매년 수해를 겪고, 주차장이 좁아 관광객과 주민간에 마찰

이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세부적인 것을 타협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군은 매년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물부족을 겪고 있다. 독높이기 사업은 이용자가 우선돼야 한다. 세부계획 작성시 최대한 하류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기환 동신대 교수는 “사전환경성 평가와 경관심의 등 사업시행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중원 전남지역본부장은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반대의견도 귀담아 듣고 전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은 사업비 518억원을 투입해 제방높이를 2.1m 높여 저수량을 588만8000여를 추가 확보한다. 하지만 인근에 환벽당, 소재원 등 가사문화원을 비롯해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환경단체와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등은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성삼베 서울 나들이 서울시민들이 지난 15~21일 서울 중로구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열린 보성삼베 홍보 전시행사를 찾아 삼베 제작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향토자원인 삼베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발해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제공>



전북 유기물 활용 해삼 양식 성공
서해수산연구소 생태친화 양식기술 개발

별도의 먹이공급없이 전북 양식장에서 배출된 유기물만을 먹이로 활용해 해삼을 양식하는데 성공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23~25일 충남 태안군 파도리 앞바다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년간 키운 해삼을 수확한다. 이번엔 수확하는 해삼은 생태친화형 양식기술인 다양양 입체양식(IMTA) 방법에 의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전북 가두리 양식장 아래 은신처를 만들고 해삼 종묘를 뿌린 뒤 전복이 먹고 남은 해조류 찌꺼기와 전복의 배설물을 먹이 삼아 키운 것이다. 양식 초기 무게 31.7g이었던 해삼은 10개월 만에 184.5g으로 무려 6배나 성장했다. 이는 일반 양식해삼이 같은 기간 3배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연구소 관계자는 “별다른 먹이 공급 없이 전복 배설물과 유기물을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한편 어장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 있다”며 “이번 해삼 양식의 성공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해안에 맞는 다양양 입체양식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품질 해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여수해경 최선에 경비함정 취항

‘물 분사 추진방식(워터젯)’을 적용한 해경의 최신 경비함이 남해안 해상치안 활동에 본격 투입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3일 국동항에서 최선에 중형 경비함 317함(460t·함정명 해유리17호·사진) 취역식을 가졌다. 317함은 여수해경이 보유한 20여척의 각종 경비함정 가운데 508함(595t)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중형 경비함이다. 176여 명의 공사비가 투입돼 13개월에 걸쳐 건조된 317함은 길이 57m, 너비 8.5m에 3600마력 엔진 4대, 365마력 발전기 2대가 장착돼 최고 38노트(시속70km)의 빠른 속력을 자랑한다. 이 경비함은 1회 6만7000ℓ의 연료를 적재한 상태에서 중간급유 없이 최대 3700km까지 항해가 가능하고, 최첨단 위성항법 장치인 DGPS플로터와 100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2대를 갖추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구례군 광의면 面誌 발간
해방이후 66년 역사 담아
구례군 광의면의 역사를 집대성한 면지(面誌)가 출간돼 향토사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광의면지 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일)는 사업비 2억여원을 들여 2년 3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1200페이지 분량의 광의면지를 발간했다. 광의면지는 다른 면지와 다르게 해방이후 현재까지 66년간 역사를 대한민국, 구례군, 광의면과 함께 도표로 수록, 시대상황을 비교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격동기의 광의사람들’에는 독립공자와 국가유공자,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여순사건 피해자,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공자들의 명단을 게재했다. 광의면지 발간은 “면지는 잊혀져 가는 지역의 역사와 풍속 등을 발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의면지 출간기념회는 24일 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대)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등가능)
▶계화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중주거지역 (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품안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광신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T. 062)371-1900, 010-2006-0115
삼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 지 : 4,000평
•전 : 9,500평
•합 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유동화 자산매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오일병원
▶대지 7867평 > 건물 2510평
▶감정가액 126억원
▶매매가액 80억원(협의후결정)
광주옥동 공장
▶대지 (지적경계부 일대) > 건물 879평
▶감정가액 15억7천만원
▶매매가액 9억5천만원(협의후결정)
광주용봉동 하미스포렉스
▶대지 4073평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감정가액 519억원
▶매매가액 160억원(시설비별도 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감정가액 99억4천
▶매매가액 55억원(협의후결정)
해남 양갈면도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감정가액 83억원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감정가액 44억3천만원
▶매매가액 20억원(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감정가액 136억원
▶매매가액 85억원(협의후결정)
* 유동화 자산매매 전문회사 유입부동산이나 경제행동중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철저합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매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매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문이사 011-694-3886 속삭이사/상가 김찬승이사 010-8033-0114 공장/토지 김규석이사 010-6654-8888
소재지 대지면적 평면도 가격 비고
아파트/빌라 명태진팀장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소재지 평면도 면적 총층 수 감정가 비고
병원,교회,사옥,모델,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7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